



금융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조영현 연구위원

최근 경제적 환경과 정신건강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등장하고 있음. 한편으로 금융이 경제적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함. 두 유형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금융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Hu et al.(2019)은 지역 은행의 대출 공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은행 규제 개혁 이후 저소득 가구의 정신건강이 증진된 것을 확인함. 이들은 대출 공급 개선에 의해 정신건강 증진 효과가 나타난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 확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의 고용과 임금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함

■ 경제적 환경과 정신건강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

- Lund et al.(2010)은 115개의 역학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연구에서 빈곤 관련 지표와 정신 장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함
- 최근 경제학자들은 태아기나 소아기의 스트레스(혹은 경제적 환경)가 이후 정신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연구하고 있음
 - Persson and Rossin-Slater(2018)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임신부의 아이들이 소아기 및 성인기에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발견함
 - Almond and Mazumder(2011)는 임신 초기의 종교적 금식기간과 아이의 정신적 장애 가능성이 비례함을 밝힘
 - Adhvaryu, Fenske and Nyshadham(2019)은 코코아 가격이 높을 때 가나의 코코아 산지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성년기에 심한 정신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발견함
- 이러한 연구들은 실업, 빈곤 등의 경제적 환경이 개선될 경우 정신장애 발병률이 감소하여, 사회 후생이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한편, 금융이 경제성장, 소득불평등, 가계의 차입과 소비 등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함

- Rajan and Zingales(1998)는 금융발전이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비용을 낮춰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킴을

실증적으로 밝힘

- Banerjee and Newman(1993)와 Aghion and Bolton(1997)은 금융발전이 자본배분을 개선시키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차입제약을 완화시켜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임
 - 반면, Brei, Ferri and Gambacorta(2018)은 특정 수준까지의 금융발전은 금융구조에 관계없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지만, 그 이상의 금융발전은 시장 중심 금융구조에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힘
- Agarwal et al.(2018)은 은행과 차입자 간의 정보비대칭에 의해 신용확장 정책에도 은행이 차입의 필요성이 높은 가계에는 최소한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발견함
 - 이러한 은행의 대출행태는 신용확장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금융이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주고 정신건강이 경제적 환경과 관련이 높다면, 금융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 이에 착안하여 최근 Hu et al.(2019)은 지역 은행의 대출 공급과 주민의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함

■ Hu et al.(2019)에 의하면 지역 은행의 대출 공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은행 규제 개혁 이후, 저소득 가구의 정신건강이 증진된 것을 확인함

- 이들은 미국의 주간(Interstate) 은행 확장을 완화한 법(The Riegle-Neal 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Act of 1994, 이하, 'IBBEA')의 시행 이후 대출과 정신건강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IBBEA 이전에 미국은 은행이 여러 주에서 영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한했으나, IBBEA 시행으로 은행이 다른 주로 영업을 확장하는 것을 허용함¹⁾
 -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의 경쟁도가 높아지며 대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
- 이들은 1957~1964년에 태어난 12,686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를 분석함
 - 1979년에 시작된 이 패널데이터에는 취업, 소득, 교육, 재산, 가족 배경 등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 이 데이터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7개 질문에 대한 답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자들은 7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정신건강 지표를 만들어서 분석하였으며 강건한(Robust) 결과를 도출함

■ 저자들은 대출 공급 개선에 의해 정신건강 증진 효과가 나타난 것이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 확대 때문이라

1) 은행이 다른 주로 영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다른 주의 은행을 인수하여 지점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주에 지점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다른 주 은행의 지점을 인수하는 것을 지칭함

기보다는, 저소득층의 고용과 임금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함

- 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기업이 다수인 지역에서 대출 공급 개선에 의한 정신건강 증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함
- 규제 완화 이후 저소득층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신용확장 기에도 은행이 대출의 필요성이 높은 가계에 여신 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Agarwal et al.(2018)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임 [kiri](#)

참고문헌



- Adhvaryu, A., J. Fenske, and A. Nyshadham(2019), “Early life circumstance and adult mental h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forthcoming
- Agarwal, S., S. Chomsisengphet, N. Mahoney, and J.s Stroebe(2018), “Do banks pass through credit expansions to consumers who want to borrow?”,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3, pp. 129~190
- Almond, D. and B. Mazumder(2011), “Health capital and the prenatal environment: the effect of ramadan observance during pregnancy”,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3, pp. 56~85
- Banerjee, A. and A. Newman(1993), “Occupational choic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 pp. 274~298
- Brei, M., G. Ferri and L. Gambacorta(2018), “Financial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BIS Working Papers 756, BIS
- Hu, Q., R. Levine, C. Lin, and M. Tai(2019), “Mentally spent: credit conditions and mental health”, NBER Working Paper 25584
- Lund, C., A. Breen, A. J. Flisher, R. Kakuma, J. Corrigall, J. A. Joska, L. Swartz, and V. Patel(2010), “Poverty and common mental disorders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71, pp. 517~528
- Persson, P. and M. Rossin-Slater(2018), “Family ruptures, stress, and the mental health of the next gene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8, pp. 52~1214
- Rajan, R. G., and L. Zingales(1998), “Financial dependence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8, pp. 559~586